'이탈리아 No.1 스파클링 와인, 최초의 스파클링 생산자'

간치아 브라케토 다뀌 DOCG

Gancia Brachetto d'Acqui DOCG

지역	이탈리아 〉 피에몬테 〉 아스띠		
포도품종	브라께또 100%		
알코올	6.5%	용량	750ml
등급	DOCG	시음 적정 온도	6-10℃
테이스팅 노트	가벼운 가넷 레드 컬러가 돋보이는 루비 레드 컬러에 장미향과 농익은 과일향의 여운이 지속되며 부드럽고 달콤한 아로마와 프레쉬하고 생기 발랄한 미감이 특징으로 여운에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기분좋은 무스크의 기운이 돋보인다.		

당도	DRY 1	2	3	4	5	SWEET
바디	LIGHT 1	2	3	4	5	FULL

제품설명

지역 와인 중 진정한 보물로 여겨지는 브라케토 다퀴는 뛰어난 퀄리티와 섬세한 캐릭터로 가장 우아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달콤한 스파클링 와인 중 하나이다. 간치아 브라케토 다퀴 DOCG 스파클링 와인은 시저가 클레오파트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처음 재배하였다는 브라케토 품종만을 사용하여 생산되며,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가면희극배우 중 한 명인 지안두아 다 지오느 디라두아(Gianduja da Gion d'laduja,혹은 Giovanni of the Jug)는 향기로운 거품이 이는 이 빨간 레드 와인에서 영감을 받아 항상 지니고 다니는 컵에 가득 채우고 그의 세련된 미각을 만족시키기에 적합한 술이라고 극찬했다고 알려져있다.

*와인 빈티지에 따라 알코올 도수는 소폭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와이너리

1850년 설립 이후,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산업의 초석을 닦아 온 와이너리로서 전통이 빛나는 뛰어난 퀄리티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간치아의 지하 셀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될 정도로 깊은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스파클링 와인과 아페라티프 와인의 세계적인 거장이다.
또한, 1870년 이탈리아의 왕 비또리오 엠마누엘 2세가 간치아를 공식 와인 공급처로 지정한 것을 필두로 교황 피오 11세,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6세 등 유럽의 로열패밀리들이 마신 와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05년에는 모엣샹동을 쇼유한 LVMH의 장녀 델핀 아르노와 간치아의 알렌산드로 간치아가 결혼하면서 프랑스와 이태리의 No.1 스파클링 와인 제국의 결합으로 주목 받았다.
오늘날 간치아는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 내수 시장에서 No.1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일본, 핀란드, 아이슬랜드 등 세계 곳곳에서 No.1 아스띠 와인으로 통한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